이베로아메리카 제14권 1호 [2012. 6] : 213~240

스페인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양상 연구: 어휘를 중심으로

조 혜 진*
(Cho, Hye-Jin)

〈Abstract〉

Estudio sobre el Sexismo en el Léxico de la Lengua Española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crear conciencia en relación con el sexismo lingüístico en la lengua española e motivar la investigación sistemática y la interpretación más crítica de este tema. Lo que se trata aquí no abarca todos los aspectos del sexismo lingüístico que normalmente se encuentran en la lengua española, sino que sugiere algunos casos de léxicos y de fraseologías muy comunes de este fenómeno. Con los ejemplos que se han proporcionado se ha intentado mostrar cómo la lengua española ha contribuido en alguna manera a perpetuar la imagen secundaria y subordinada de la mujer en la sociedad tradicional hispana.

[Key Words: Sexismo Lingüístico/ Lenguaje de Género/ Sociolingüística Feminista/ Eufemismo/ Disfemismo]
[주제어: 언어상의 성차별/ 성별 언어/ 페미니즘 사회언어학/ 완곡어법/ 위악어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hjflex@hanmail.net

Ⅰ. 서론

인간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이고 사고를 외부로 표출하며 세대 간에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인 언어는 인간의 소산물이다. 동시에 언어는 인간의 외부세계에 대한 상상력 구축과 개인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한 사회 공동체의 정신세계와 사적·사회적 행위는 일정부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인간은 누구나 언어 기호를 익히고 사용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양상은 자연환경, 사회 규범이나 관습, 종교, 교육, 개인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회·문화적이고 후천적인 학습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화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사상·문화적 배경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나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뚜렷한 공동체의 언어는 분명히 남성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스페인어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다른 형태의 어미로 이를 구별하여 나타내는 언어이다. 이 때 어휘의 성género은 단지 문법적인 기호일 뿐이며 항상 생물학적인 성sexo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의 경우, 성의 구분은 연주자-악기(el trompeta-la trompeta), 나무-과실(manzano-manzana), 크기의 차이(cesto-cesta) 등 여러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사의 성별 구분은 해당 언어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므로 언어사용의 이면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판단기준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다음의 짧은 글을 읽어보자.

> Un padre y su hijo iban en coche cuando, de pronto, el padre perdió el control del vehículo y se estrellaron contra un poste telefónico. El padre murió en el acto; su hijo quedó muy maltrecho y fue llevado rápidamente al hospital, en donde se le apreciaron lesiones importantes que le querían una urgente intervención. Fue llamado el equipo médico de guardia y, cuando llegó a la sala de operaciones a examinar al chico, se oyó una voz. "No puedo operar a este niño; es mi hijo!".
>
> Pérez tenía un hermano. El hermano de Pérez murió. Sin embargo, el hombre que murió nunca tuvo un hermano.[1)]

위의 글들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읽는 이에게 잠시 혼동을 자아낸다. 전자는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아이를 보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의료진의 이야기이고, 후자는 Pérez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다고 말해놓고 정작 죽은 사람은 형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이다. 생각을 조금 바꿔 이를 다시 살펴본다면 의료진과 Pérez라는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글을 접했을 경우 '의료진=남성'이라는 정형화된 연상 작용과 남성을 이름보다는 성으로 지칭하는 스페인어의 관례로 인해 주인공들이 모두 남성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글의 내용과는 무관한 언어적인 성차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스페인어는 다른 로망스어 계통의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대)명사 및 명사가 수반하는 품사들은 보통 성에 따라 변화어미가 선택된다. 본 논문에서 숙고하고자 하는 문제는 특정 언어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성변화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한쪽 성에

1) Curso de formación de monitores/as de coeducación (1989, 81)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다른 쪽 성을 예외로 보거나 제외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을 남성에게서 파생된 형태로 보기 때문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있거나 하위의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성sex이 문화·언어적인 현실까지 지칭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례로 위의 짧은 글에서 보았다시피 스페인어에서 직책이나 직업, 가족관계를 가리키는 명사는 남성형이 기본형 혹은 대표형이므로 무의식적으로 이를 먼저 남성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이는 한국어도 다르지 않아, 의사-여의사, 학생-여학생, 경찰-여경, 군인-여군 등의 유표적인 형태로 여성의 직업이 표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두 언어가 공통적으로 남성을 무표적인 형태로 설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대화의 도구이자 인간 행동 중의 하나이다. 하나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공통어 안에서 인간은 관계를 맺고 문화를 창조하는 동시에 그 문화에 근접하는 도구로 언어를 창조해내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어는 인간의 소산물이자 인간을 규정하는 기호인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인간의 성별과 그와 관련된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관심이 비롯되었다. Thorne & Henly(1975, 68-69)는 성별 언어에 대한 최초의 관심이 Garib 부족의 남성과 여성 언어의 차별적 형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164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비로소 미국을 선두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사회적 역할과 언어 사용은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이때부터 언어학을 필두로 심리학, 사회학, 고고학, 생물학, 여성학, 종교학, 교육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심리언어학이나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성별 언어사용은 한 언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남자와 여자의 행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인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사회적인 성차별의 결과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성차별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둘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차별적인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언어적인 성차별은 일상적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언어의 문법 구조가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여러 차별적인 언어 양상들이 실제로 동일한 언어공동체 내부에 존재한다. 그 이유는 언어 규범이 남성을 기준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여성어나 여성형 어휘를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인식은 현대 사회로의 변화와 여성학이나 사회언어학의 발전과 더불어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성별을 동등한 사회적 변인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를 비롯한 일부의 표현들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정 언어 공동체가 여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간과했던 바가 가장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곳이 어휘와 관용 표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언어적인 성차별에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의식화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한 성별어가 다른 성별어보다 우월하거나 지배적인지 살펴보는 것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성차별이 뿌리 깊은 사회·문화와 그 언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이 같은 언어 현상에 어떤 가치와 상징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선행연구

과거 여성과 관련된 언어 표현에 대한 여러 언어학자들의 의견은 남성중심적 사고나 전통적인 관점, 대중의 심리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O. Jespersen(1922, 248-250)은 남성이 언어 변화의 주역이며, 여성들이 사용하는 어휘는 남성들보다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미완의 문장 사용이 많아 혼동을 자아내기 쉬우며, 감정적인 표현이나 억양으로 의사 전달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C. Balmori(1962, 124) 또한 여성어의 특징은 '천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어휘력이 남성의 그것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들은 여성이 쓴 글을 교재로 선택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초급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남성에 비해 빈곤한 여성의 어휘력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행동반경이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좁은데서 기인했다. 또한 여성은 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다각적인 사고를 언어로 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다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Jespersen이나 Balmori를 비롯한 다른 언어학자들에게도 부족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남성이 기준이었고 세계관의 기초였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여성어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자기 권리 주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초기 성별 언어에 대한 관심은 이렇듯 남녀의 언어사용 양상의 차이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의 발달과 함께 인종, 성별,

연령, 사회 계급, 교육 수준, 출신지, 직업, 종족 등을 언어 변화나 차이를 촉발하는 사회적 변인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이 중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불과 3, 40여 년 전의 일이다. 페미니즘의 발생·확산과 더불어 특히 미국과 퀘벡, 몬트리올 등을 중심으로 언어상의 성차별 양상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페미니즘 사회언어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학문 분야의 주된 특징은 언어 사용에서 의식·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양상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대중을 각성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북미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시작된 연구가 스페인어를 대상으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주로 스페인 여성 협회Instituto de la Mujer의 주도로 청소년 교육과 연관하여 이루어져왔으며, 점차 교육과학부Ministerio de la Educación y Ciencia와의 공동 작업으로 양성 평등교육coeducación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나 사법부를 포함한 각종 직업 분야에서도 언어상의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학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점차 효력을 얻고 있다.[2)]

한편, 언어학적인 면에서의 성별 언어와 성차별적 양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77년 Á. García Meseguer의 『Lenguaje y Discriminación Sexual』 출간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이후, Mª Á. Calero Fernández, P. García Mouton, E. Lledó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문법적인 성

2) 2007년 11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의회는 성차별적 언어가 사용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이미 각 분야의 전문가와 언어학자, 법률 자문 등이 모여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그 결과 약 250개에 달하는 어휘나 구문이 수정을 거쳐야만 했다.

género과 생물학적인 성sexo의 문제, 직업명에서의 성차별적 양상, 어휘·형태·통사적 측면에서의 성차별 양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Ⅲ. 스페인어의 성차별적 양상

먼저, 스페인어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나 행위, 가치, 자질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어휘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faldero, mujeriego, institutriz, caballerosidad, maruja, mujerzuela, marimacho, primera dama, hombría, calzonazos 등은 양성 중 한쪽에게만 활용될 수 있는 어휘들로서, 동일한 의미로 다른 쪽 성에게 적용될 수 없다.

(1) hombría, caballerosidad, hidalguía
*mujería, damasidad
(García Meseguer 1994, 32)

또한 양성 모두에게 활용되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hombre público/mujer pública, individuo/individua, verdulero/verdulera, solterón/solterona, gobernante/gobernanta, un cualquiera/una cualquiera, fresco/fresca, fulano/fulana, zorro/zorra, golfo/golfa, perro/perra[3] 등의 어휘

3) 이들에 대한 한림원 사전의 정의를 일부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Cualquiera 1. pron. indef. U.t.c. adj. indf. Una persona indeterminada, alguno, sea el que fuere. 2. f. Mujer de mala vida; Fulano/a 1. m. y f. U. para aludir a alguien cuyo nombre se ignora o no se quiere expresar. 2. m. y f. Persona indeterminada o imaginaria. 3. m. y f. Con referencia a una persona determinada. u. en sent. despect. 4. m. y f. Querido. 5. f. Prostituta.

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여성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Ajamonarse[4] 처럼 중년에 접어든 여성이 살이 찌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는 있지만 그와 같은 남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동사는 없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다른 의미나 가치를 가지거나, 남성의 관점에서만 정의되거나 남성형이 여성형을 포괄하는 경우 등 어휘에서 발견되는 성차별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어휘의 범주를 넘어서기는 하지만 관용 표현이나 속담, 유머 등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구태의연하지만 뿌리 깊은 남성중심 사회의 고정관념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한 사회가 여성에 대해 견지하고 있던 시각과 정서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왜 그런 방식으로 현실을 표현하고 지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어휘나 표현들은 한림원 사전, V. León의 『Diccionario de argot』, J. Martín의 『Diccionario de expresiones malsonantes』, Campos & Barella의 『Diccionario de Refranes』 등에 기재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1. 한림원 사전의 문제

사전에 기재된 어휘들은 한 민족의 역사를 가늠하게 해주는 사료이기도 하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의 변화와 같은 과거의 흔적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림원의 사전 또한 한 시대의 지배적인 관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료라고 판단된다. 비록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술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일반 대중

4) pron. fam. Engordar una persona cuando ha pasado de la juventud. Se usa especialmente referido a la mujer.

의 정서와 감정, 실생활과 무관할 수 없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한림원 사전은 부정할 수 없는 남성의 시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휘의 정의와 예문은 진부한 성차별적인 관점을 과거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남성의 시각에서 제시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 Allende 'Allende de ser hermosa, era discreta'.

비록 allende가 사어死語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보다시피 양성이 아닌 남성만의 관점에서 예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어야 할 한림원이 여성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E. López 2007, 633). 실제로 이 어휘가 성차별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페인어를 대표하는 사전에 이렇게 편향적인 예문이 아직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문뿐만 아니라 어휘의 정의에서도 이렇게 한쪽 성으로 치우친 관점이 발견된다. 일례로 다음 어휘들의 정의를 살펴보자.

(3)

Canonizar	tr. Declarar solemnemente santo y poner el Papa en el catálogo de ellos a un siervo de Dios, ya beatificado.
Criar	2. tr. Dicho de una madre o de una nodriza: Nutrir y alimentar al niño con la leche de sus pechos, o con biberón.
Fratricida	com. Persona que mata a su hermano.

	Gozar	3. Conocer carnalmente a una mujer.
	Incasable	3. adj. La mujer que difícilmente consigue marido, entre otras causas, por su fealdad.
	Niñada	f. Hecho o dicho impropio de la edad varonil, y semejante a lo que suelen hacer los niños, que no tienen advertencia ni reflexión.
	Reinar	intr. Regir un rey o príncipe un estado.
(4)	Lagarto	3. m. coloq. Hombre pícaro, taimado. U. t. c. adj.
	Lagarta	3. f. coloq. Mujer taimada. U. t. c. adj. 4. f. despect. coloq. prostituta. U. t. c. adj.

위에서 서술된 바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성차별적인 관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criar의 경우 남성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모유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젖병으로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성 고유의 행위로만 정의하고 있으며, incasable의 경우는 1970년 이후 개정에 의해 정의가 수정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멀지 않은 과거에 남성 중심의 관점 하에 정의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lagarta는 특이하게도 lagarto와 별개로 한림원 사전에 기재되어있다. 은유적으로 '창녀'를 뜻하는 lagarta가 처음으로 기재된 것이 1992년 개정본임을 고려할 때 한림원이 매우 보수적인 집단인 동시에 예외적으로 비논리적인 표제어 정렬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도 한림원 사전의 성차별적인 정의나 예문 기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사회구성원들의 변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사회의 가치, 관습, 교육은 그 사회구

성원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음이 한림원 사전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한림원 사전의 임무는 앞으로 그 갈 길이 매우 멀다고 판단된다.

2. Hombre와 Mujer

스페인어에서 '인간'을 뜻하는 남성명사 hombre는 동시에 '남성'의 동의어로 쓰이며, 영어 man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소외되어 있는 어휘이다. 스페인어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인간을 총칭하거나 복수형으로 사용하거나 한 국가의 국민 전체를 가리킬 때 남성형이 여성형까지 포함한 대표적인 형태로 선택된다. 남성형이 남성과 인간 전체를 지칭한다는 것은 '남성=종류 전체'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의 존재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한 명의 남성이 포함된 여성 집단까지도 남성형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문법 규칙인 것이다.

(5) El hombre es un animal racional.
Al coreano le gustan las comidas picantes.

(6) Había gran cantidad de aficionados y también muchas mujeres.
(García Meseguer 1994, 24)

그러므로 성차별적인 언어 양상에 대해 논할 때 hombre는 가장 먼저 제시되는 사례이며, persona와 varón을 그 의미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항상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물론 hombre처럼 노골적인 성차별적 어휘를 언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사회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자문화권의

‘인간人間’은 생물학적 성이 드러나 있지 않고, 여성女性[5], 남성男性으로 성별 구분이 평등하게 표현된다고 해서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차별받고 살아온 여성의 현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스페인어권 지역에서 género와 sexo를 동일시하는 통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성과 문법적인 성이 대부분 일치하는 문법 규칙과 그에 따른 성변화 어미의 유형을 고려할 때 género와 sexo를 동일시하는 시각은 스페인어권 지역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성을 논할 수 없는 명사(ser, criatura)나 추상명사(belleza), 사물의 성(cine, coche)을 결정하는 방식 등에서도 생물학적인 성과 문법적인 성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성변화어미는 남성에게 부속된 여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respo Matellán(1984, 129-132)은 문법적인 성이나 의미에 따른 명사 구분이 특정 언어공동체가 현실을 보는 관점과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법적인 성과 생물학적인 성을 동일시하는 시각은 모든 문화・사회에서 특정 사물이나 개념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와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명사의 성이 주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체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1993년 스페인의 출생기록부에서 hembra 대신 mujer를 사용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García Meseguer 1994, 29), varón과 hembra가 그릇된 대칭적 형태로 통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

5) 한편, ‘남자男子’, ‘여자女子’, ‘자식子息’ 등에 쓰이는 ‘아들 자子’는 이 또한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표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남녀평등, 남녀공학, 신사 숙녀 여러분, 신랑 신부’ 등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남성이 여성보다 전치되지만, ‘그 년 놈들이 서로 짜고서~’와 같은 비속어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치된다. 이와 같이 우리말에도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뚜렷한 차이가 언어 사용에서 표출되는 경우가 있음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이다.

다. Hembra는 macho의 반대 성으로 동물의 암수 구분에 사용되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varón-mujer가 올바른 대칭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비대칭적인 명칭이 남녀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스페인어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례라 할 것이다.

3. 호칭의 문제

성별 호칭어가 불균등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명백한 언어상의 성차별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señora/señorita이다. 이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한 남성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 호칭어인 반면 그 남성형인 señor는 결혼과 무관한 독립적인 호칭어이므로 이 또한 성차별로 판단하는 것이다. 영어의 Ms.와 같이 이를 대체할 형태가 아직까지 고안되지는 않았으나, 이렇듯 확연하게 차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성을 지칭하는 경우 señorita의 사용을 회피하는 추세이며, 이는 특히 수신자를 알 수 없는 편지나 서식에서 Sr. D.과 Sra. Dña를 함께 명시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이름이나 성으로 남녀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남성은 성으로 여성은 이름으로 호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알고 지내는 여성의 이름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도 빈번하다.

(7) Gómez y Alicia trabajan en una oficina de exportación.

(8) La Victoria baila muy bien.
*El Machado baila muy bien.

이는 현재 고리타분한 습관으로 취급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차별적인 기준 하에 호명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4. 직책이나 직업명

과거 여성의 일은 항상 남성의 그것에 비해 경시되었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안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성의 직업은 남성의 그것보다 평가 절하되거나 하위의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여성은 남성의 보조역을 맡거나 결혼을 통해 남성의 지위에 편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어미로 성별을 구분하는 스페인어에서 특히 '직업여성'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근세에 들어 여성의 사회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각종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을 지칭하기 위한 어휘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통 세 가지 방법이 동원되므로 일부 혼란스러운 양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García Meseguer 1994, 50-52).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남성명사의 어미변화로 여성명사를 파생시키는 것이다(la jueza, la obispa). 두 번째로, '여성관사+남성명사' 형태가 사용된다(la juez, la obispo). 세 번째는 남성형을 양성에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다(el juez, el obispo). 언어의 경제 원칙, 즉 한 어휘에 최대한의 정보를 함축하기 위하여 두 번째 방법이 규범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성의 권리 주장이 사회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실제로는 la juez와 la jueza가 모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사용 형태와 '규범' 간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 내에서만 머물 뿐 직업을 따로 갖지 않았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사실 직업이나 직책을 가리키는 명사의 여성형은 보통 '~의 부인'을 뜻했었다. 일례로 peluquera, maestra, sacristana, secretaria, alcaldesa, tabernera, jueza, baronesa 등의 대부분은 오늘날 어휘화 과정을 거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명명하는데 쓰이고 있긴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림원 사전도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6] 이와 같은 상황은 여성의 사회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변화해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일한 어휘가 다른 범주를 가리키거나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한림원 사전에 따르면 과거에 maestro가 과학이나 예술, 기술 등을 가리키는 남성을 의미하기도 했던 반면, maestra는 여학교의 여선생님을 뜻하기도 했었다. 또한 verdulero/a의 경우, 남성형은 단순히 '채소가게 주인'을 뜻한다면 여성형은 '뻔뻔하고 속물적인 여자'를 뜻한다. 이는 단순한 직업명이 아닌 다른 가치를 여성에게 부여한 결과이다. 다음의 예문도 화맥에 대한 이해 없이 접하게 될 경우, 전자와 달리 후자는 우리말의 '직업여성'과 같은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R. Lakoff 1975, 70-71).

(9) Él es un profesional.
Ella es una profesional.

---

6) 일례로 DRAE에 수록된 어휘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luquero, ra. 1. m. y f. Persona que tiene por oficio peinar, cortar el pelo o hacer y vender pelucas, rizos, etc. 2. m. y f. Dueño de una peluquería. 3. f. coloq. p. us. Mujer del peluquero; sacristana. 1. f. Mujer del sacristán. 2. f. Religiosa destinada en su convento a cuidar de las cosas de la sacristía y dar lo necesario para el servicio de la iglesia. 이 어휘들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의 역할로 해당 직종에 참여하게 된 역사가 길면 길수록 '~의 부인'이라는 정의가 해당 어휘에 대한 여러 다양한 정의 중 하단부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ecretario/ria의 경우, 총 8개의 정의 중 여덟 번째가 8. f. coloq. p. us. Mujer del secretario 임을 고려할 때 이 직종에 여성이 참여한 시간이 다른 직종에서보다 오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Hombre público-mujer pública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남성은 사회적으로 존재감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임을 뜻하지만 여성은 창녀를 뜻하는 완곡어법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왔던 가사에는 비교적 세분화된 직업명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cocinera, criada, azafata, fregona, costurera, niñera, etc.), 위에서 언급한 불균형은 당연히 여성의 사회참여 경험의 역사가 남성에 비해 극히 짧은 것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다수의 의미장을 이루는 여성의 직업명이 '창녀'라는 사실은 부계중심, 남성중심의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7] 괄목할 만큼 많은 수의 명사와 완곡어법으로 지칭되는 '직업여성' 즉 '창녀'의 남성대칭어 prostituto가 사전에 기재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은 한림원 및 기타 사전에 기재된 명사들의 일부이다.

(10) prostituta, ramera, fulana, furcia, zorra, puta, meretriz, cortesana, coima, pelandusca, buscona, pingo, mantenida, mesalina, hetaira, mantenida, lagarta…

짐짓 무표적으로 보이는 perdida, prójima 또한 문맥에 따라 창녀와 유사한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들 모두가 부계 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필요에 의해 발달된 어휘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동일한 직종이라도 남성형은 여성형에 비해 좀 더 큰 범주를 가리키거나 상급자, 소유주임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며(carbonero/a, joyero/a, bañero/a, cantinero/a),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른 직업을 의미하기

7) Miguel Casas(1986)는 스페인에서 '창녀'가 725개의 완곡어법과 위악어법으로 지칭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거기에 184개의 어휘가 더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도 한다(gobernante/gobernanta).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형만이 쓰인 경우, 여성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의 뜻과는 다른 '~의 부인'의 의미로 쓰이거나 폄하의 의도로 사용되기도 한다(sargento/sargenta).

5. 육체나 정신적인 면과 관련된 표현

스페인어에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의미가 적용되는 어휘들이 적지 않다. 동일한 자질일 지라도 여성형은 남성형보다 하위 혹은 종속된 지위를 뜻하거나 단점으로 간주하는 어휘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견 남성명사나 형용사가 어미변화로 대칭적인 여성형을 파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멸시하는 것이다.

일례로 tener buen palmito는 아름다운 얼굴이나 몸을 가진 여성을 가리키지만 동형으로 남성에게 쓰이지는 않는다. 이는 남성의 시각에서 그들의 관심이나 이해를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은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그러한 여성을 칭송하는 반면 'El hombre y el oso, cuanto más feo más hermoso'와 같은 속담이 드러내듯 남성의 아름다움은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왔다. 한림원 사전에 의하면 '지저분하고 넝마를 걸친 남자', '수수하고 주변에 무관심한 남자'를 뜻하는 adán은 대칭적인 여성형이 없다. 이로 미루어보아 개인위생이나 외모를 가꾸는 것과 주변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여성 본연의 특성으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명명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어휘나 관용 표현들은 그 수가 많으면서도 다양하다.

(11) fetén, monumento, tía buena, estar de bandera, estar de espanto, estar de miedo, estar de muerte, estar de vicio, estar bomba,

estar buena, estar cañón, estar cojonuda, estar como quiere, etc.

위의 표현들 중 남성에게는 tío bueno, estar bueno 만이 동질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8] El guaperas, el muñeco 등으로 지칭된 남성은 오히려 남성적이지 않은 남성으로 간주되었고, 형용사 lindo[9] 또한 통속적으로는 여성화된 남성을 가리킨다고 한림원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육감적인 몸매의 여성은 maciza, una buena jaca, tiene buenas curvas 등으로 표현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여성은 escoba, campeona 등의 경시조의 어휘로 비하된다. 또한 estar para comérsela, estar rica, estar cachonda, tener a donde agarrarse, estar para hacerle un favor 등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지칭하는 남성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을 bombón, dulce, sabrosa, salada, salerosa, sosa 등 음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추한 여성을 가리키는 경시조의 어휘로는 callo, cardo(borriquero), loro, cacatúa, carantoña 등이 있다. 특히 loro, cacatúa, carantoña는 노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나이든 여성과 아름답지 못함을 동일시하는 남성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에게 있어 자신들의 미추의 구분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를 명명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남성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욕구는 mancebo/a에도 잘 드러난다. 한림원 사전에 따르면, mancebo는 '젊은 남자', '독신남'을, manceba는

8) 실제로는 위의 표현들을 남성형으로 바꾼 동질의 표현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근래의 일로서 아직 한림원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9) 3. m. coloq. Hombre afeminado, que presume de hermoso y cuida demasiado de su compostura y aseo.

‘첩concubina’을 의미한다. 첩과 젊은 여성의 동격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끔 하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barragán/na 또한 남성형은 ‘젊은 독신 남자’를, 여성형은 ‘첩’을 의미한다. ‘노처녀’를 뜻하는 solterona, jamona는 남성형인 solterón에는 없는 비하적인 뉘앙스를 지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또한 여성의 나이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된 어휘의 경우도 앞에서 살펴본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용사 entretenido는 재미있고 익살스러우며 활달한 남성을 가리키는 반면, entretenida는 남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여성을 가리킨다. 또한 남성이 galante하다면 예의바르고 정중한 것을 일컫지만 여성의 경우는 방종한 태도를 가리킨다. 각각의 여성형은 공통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의미가 적용되는 어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를 이룬다.[10]

한편, varón honesto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는 반면 mujer honesta의 경우는 mujer ligera의 반의어로 ‘정숙한 여인’ 즉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여성을 의미한다. 또한 la inocente는 남성을 지칭할 때와 달리 ‘처녀’를 뜻하며, 여성의 처녀성을 중시했던 과거 스페인어권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deshonrada, perder la vergüenza, perder la virginidad, tener una caída, dar un mal paso, meter la pata 등은 당연히 동일한 의미로 남성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원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 세기 동안 한 사회를 지배해왔던 가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10)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Zorro 6. fig. y fam. Hombre muy taimado y astuto / Zorra 5. Prostituta, mujer pública; Pellejo 5. fag. y fam. Persona ebria / Pelleja 4. Prostituta, ramera.

또한 스페인어에는 기혼자의 부정 특히 기혼 여성의 부정을 강조하고 이를 지칭하는 어휘 또한 다수인데 반해 기혼 남성의 외도를 뜻하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혼여성의 부정이 일상적인 일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혹은 기혼 남성의 부정이 여성의 그것보다 희귀하거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뉴스를 언급하지 않아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위주의 세계에서 '부정不貞'은 배우자인 여성의 그것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명칭을 얻었던 것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12) consentidor, cabestro, cabrito, cabrón, cabronzuelo, novillo, paciente, predestinado, cuclillo, sufrido, cornúpeta, etc.

위의 명사들은 모두 부정한 여인을 둔 남편을 뜻하는 cornudo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외에도 수많은 비속어가 함께 통용된다. 한편, 반의의 접두사가 첨가된 파생어 escornarse, descornarse 등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여성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남성에게 부여된 자질로 이해하는 남성 위주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만의 천성으로 멸시나 비난의 대상이 된 것에는 다변多辯도 있다. 이런 연유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 coñazo[11]는 cojonudo[12]와 다르게 부정적인 상황이나 대상에 사용되는 것이다.

'갈라진 틈'을 뜻하는 raja에서 파생한 rajado는 속된 말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persona rajada는 '겁쟁이', '여성스러운 남자',

11) m. fam. Persona o cosa latosa, insoportable.
12) adj. vul. Estupendo, magnífico, excelente.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는데, 망설임이나 심약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여성 특유의 천성으로 간주한 결과이다.

이 외에도 육체적 · 정신적 · 도덕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된 언어 표현이 많지만, 위에서 살펴본 일부의 예만으로도 스페인어권 사회에서 형성된 전형적인 여성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통용되는 가치로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완전하지 않고, 이것이 언어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속담과 유머

한 언어공동체의 삶과 문화 속에서 속담은 대대로 민간에 전해오는 지식과 전통을 말로 전수하는 대표적인 언어형식이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에서 얻어진 인간의 지혜를 실질적이고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익명성과 집단성을 특징으로 하며 해당 문화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속담이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진리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여성과 관련된 스페인어 속담에는 근본적으로 성차별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던 기독교[13], 유태교, 이슬람교의 교리가 가부장적 사회 질서 수립에 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수용되는 가치체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 차이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었다. 그러므로 속담은 앞장에서 살펴본 내

13)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

용과는 다르게 언어상의 성차별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차별의 언어적 반영이라고 하겠다. 다음 속담들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살펴보자.

(13) La mujer tiene largo el cabello y corto el entendimiento.
Los negocios de la mujer buena, dentro de casa y no fuera.
Donde hay gallo no manda gallina.
La mujer y la sartén, en la cocina están bien.
La mujer y el vino engañan al más fino.
La mujer y el huerto, no quieren más que un dueño.
De la mujer y el mar no hay que fiar.
La que a su marido quiere servir, ni puede, ni quiere dormir.
En la calle están las malas y las buenas en sus casas.
(Campos & Barella 1996)

스페인 속담에 의하면 여성은 어리석고, 수다스러우며, 뻔뻔하고, 배은망덕하고, 책임감이 없고, 음란하고, 위선적이다. 그래서 속담은 남성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거나 충고하기도 한다.[14] 물론 'Casa sin madre, río sin cauce', 'A quien tiene madre, no hay que llorarle'와 같이 여성의 소중함을 전하는 속담도 있으나 이러한 칭송은 보통 어머니에게 국한된다.

이와 유사하게 부계중심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이해하는 각기 다른 형태가 반영되어 있는 또 다른 좋은 예가 바로 유머이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 하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남성의 시각이 고스란히

14) 일례로 'El asno y la mujer, a palos se han de vencer'를 들 수 있다.

반영되어 있으므로 언어-문화-여성상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언어상의 성차별이라기보다는 속담과 같이 사회적인 성차별의 언어적 반영이라고 하겠다.

(14) ¿Cuál es la diferencia entre una mujer con bata blanca y un hombre con bata blanca?
-El hombre con bata blanca es médico, la mujer verdulera.
¿Cuál es el femenino de siesta? -¡Fregar los platos!
¿Qué pinta una mujer en el salón? -Turismo porque su sitio es la cocina.
¿Qué es una mujer? -El motor de la fregona.
¿Cómo se llama la modalidad del tenis en la que a cada lado de la pista hay una mujer y un hombre? -Individual masculino con obstáculos.
¿Cuánto tarda una mujer en llegar al orgasmo? -A quién le importa.
¿Qué es una mujer inteligente? -Un travesti.
¿Saben por qué las mujeres tienen un sexto sentido? -Porque perdieron su quinto.[15]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위와 같은 종류의 농담을 어디에서든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그러나 남성 전체를 희화하는 유머는 매우 드문 반면 여성을 한꺼번에 익살스럽게 비하하는 농담은 아직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남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종 등장하

15) www.terra.es/personal/gmalpart/chorrada/esp/chistes.htm

는 대화 소재이다. 이것도 본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어상의 성차별과 함께 종식되어야 할 사회적·심리적인 성차별의 한 종류임은 이미 두말할 나위가 없다.

Ⅳ. 결론

언어란 우연히 발생하는 음성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해당 언어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성격과 특성에 합당하게 변화를 거듭해간다. 그렇다면 성을 계급화하고 뚜렷하게 그 역할을 분리했던 스페인어권 사회의 특징 또한 언어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성차별적인 선입견이 언어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비록 근세에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스페인어는 전통적인 여성상, 즉 남성이 부여했던 여성상에서 아직도 전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그 언어공동체가 여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간과하거나 멸시한 바를 경각심을 갖고 부각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연구의 범위는 이 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휘와 관용 표현으로 한정하였으며, 첫째, 한림원 사전에 기재된 어휘의 정의와 예문에서 드러난 문제점, 둘째, 인간이자 남성이기도 한 'hombre'가 내포하고 있는 성차별적 관점, 셋째, 성별에 따른 호칭의 문제, 넷째, 직업이나 직책명에 나타난 성차별적 양상, 다섯째, 육체나 정신적인 면을 가리키는 어휘가 대상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 여섯째, 속담이나 유머에 등장하는 성차별 등으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스페인어의 성차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언어상의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사회적인 성차별 타파라는 대과업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더군다나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를 논한다는 것은 단순히 스페인어권 지역의 현실과 무관한 학문적인 관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가부장적인 사회 체계와 유교적 가치관 하에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했던 흔적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한국어를 반추해보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어휘나 관용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의식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논자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휘나 관용 표현에서만큼 성차별적 양상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동반되어야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두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스페인어의 성차별적 양상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스페인 한림원 인터넷 사전, 22ª ed., http://buscon.rae.es/diccionario/drae.htm

Chistes machistas, www.terra.es/personal/gmalpart/chorrada/esp/chistes.htm

VV.AA.(1989), *Curso de formación de monitores/as de coeducación*, Valencia: Institut Valenciá de la Dona.

Balmori, C. H.(1962), "Habla mujeril", *Filología*, 8, pp.123-128.

Calero Fernández, Mª Á.(1999), *Sexismo lingüístico. Análisis y propuestas*

ante la discriminación sexual en el lenguaje, Madrid: Narcea.

Campos, J. G. y A. Barella(1996), *Diccionario de Refranes,* Madrid: Espasa-Calpe.

Casas Gómez, M.(1986), *La interdicción lingüística. Mecanismos del eufemismo y disfemismo*, Universidad de Cádiz.

Crespo Matellán, S.(1984), "Lenguaje y sexo", *Studia Philologica Salamanticensia*, Nº.7-8, Universidad de Salamanca.

García Meseguer, Á.(1977), *Lenguaje y discriminación sexual*, Barcelona: Montesinos.

_____ (1994), *¿Es sexista la lengua española? Una investigación sobre el género gramatical*, Barcelona: Paidós.

García Mouton, P.(1999), *Cómo hablan las mujeres*, Madrid: Arco Libros.

Gómez Molina, J.(2000), "El insulto en la interacción comunicativa. Estudio sociolingüístico", *Oralia*, 4, pp.103-132.

Jespersen, O.(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Allen and Unwin.

Lakoff. R.(1975), *El lenguaje y el lugar de la mujer*, Barcelona: Ricou.

León, V.(1980), Diccionario de argot, Madrid: Alianza.

Lledó, E.(1993), "El sexismo y el androcentrismo en la lengua: análisis y propuestas de cambio", *Cuadernos para la coeducación*, 3, Institut de Ciencias de l'Educació, Univ. Autónoma de Barcelona.

López, E.(2007), "Pautas de observación y análisis del sexismo. Los materiales educativos", *Interlingüística*, 17, pp.630-639.

Martín, J.(1979), *Diccionario de expresiones malsonantes del español*, Madrid: Istmo.

Thorne, B. & Henly, N.(1975), *Language and Sex*, Massachussetts: Newbury House.

논문투고일자: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11일